

# 文獻과 考古資料로 본 麗末鮮初

## 제주의 기와수공업\*

전 영 준 \*\*

- I. 머리말
- II. 文獻으로 확인하는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 III. 考古資料로 확인하는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최근 제주시 광양로터리 인근의 숙박시설 부지 내에서 발굴된 2기의 瓦窯址는 고려시대의 유구로 파악되고 있어서 늦어도 여말선초시기 제주지역에는 기와수공업이 실재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말선초시기 제주지역의 수공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대부분 유배인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여말선초시기 기와수공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시대 제주 지역 창건 사찰의 사찰수공업 운영 방식을 내륙 사찰과 비교 검토하거나, 여말선초시기의 제주 행정관서에 대한 일련의 발굴 결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당시의 제주사회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궁실] 항목의 弘化閣과 [누정] 항목의 觀德亭에 대한 기사이다. 1435년에 화재로 소실된 관청 건물을 중수할 때 廢寺된 사찰의 기와를 재활용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제주에서는 그 이전부터 기와를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제주 지역에는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찰이 15處 내외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수정사는 법화사·원당사와 함께 고려시대 제주의 3대 사찰로 손꼽혔다. 고려시대의

---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사찰들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僧物의 제작이나 사찰건축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 기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제주지역에서 운용되었던 사찰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삼별초의 제주 진입과 함께 유입되었을 각종 수공업 문화는 기존의 사원수공업과 함께 여말선초 수공업 문화의 한 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홍화각의 중수 때 함께 마련된 건물은 모두 206칸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인다. 많은 건물을 중수하거나 신축할 때에는 당연히 상당한 양의 건축자재를 필요로 하는데, 기와 또한 상당량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홍화각 중수에 폐사된 사찰의 기와를 사용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사용처가 담장지에 제한적으로 쓰였다는 발굴 결과를 반영한다면, 신축 건물에 쓰였을 기와는 새롭게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기와 생산 방식이 수요처의 인근에서 제작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주목 관아지와 가까운 곳에 당시의 기와 가마터가 존재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주제어: 홍화각, 관덕정, 기와수공업, 사원수공업, 와요지

## I. 머리말

최근 제주에서는 항파두리 토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본격화된 항파두리 내성지 조사와 그 현장에서 수습되는 다양한 고려시대 기와 및 일정한 패턴으로 시문된 명문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고려시기 제주지역의 각 분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와 함께 2015년 초 광양로터리 인근의 숙박시설 부지 내에서 발굴된 2기의 瓦窯址는<sup>1)</sup> 고려시대의 유구로 파악되고 있어서 늦어도 여말선초시기 제주 지역에는 기와수공업이 실재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만

1) 제주고고학연구소, 「이도1동 숙박시설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2015에서는 와요지의 조성 시기에 대한 異見이 있지만, 늦어도 고려 후기에는 기와를 생산하였던 시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되면 더욱 확실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말선초시기 제주지역의 수공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대부분 유배인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때문에 여말선초시기 기와수공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시대 제주 지역 창건 사찰의 수공업 운영 방식을 내륙 사찰의 그것과 비교 검토하거나, 여말선초시기의 제주 행정관서에 대한 일련의 발굴 결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sup>2)</sup> 이것은 이미 발굴된 제주목 관아지의 여러 건물 성격을 논하는 과정에서도 營繕 등의 수공업을 관할하는 시설을 짐작하게 하는 건물지가 보이고, 이것은 이미 이전 왕조가 제주 행정을 관할하였을 때부터 운영되었을 각종 수공업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고려시대의 제주사회의 편제 방식을 제주민의 활동과 연관하여 분석한 연구나<sup>3)</sup> 여말선초시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sup>4)</sup> 및 삼별초의 항파두리 토성 입거 과정에서 활용된 기와 연구<sup>5)</sup>에서도 제주사회의 수공업이 일정한 수준

2) 지난 1991년부터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는 제주목 관아지를 발굴하였고, 이 과정에서 출토된 여러 종류의 기와와 상감청자·분청사기 및 백자 등의 도자유물은 조선전기 때부터 중-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뚜렷한 변천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牧官衙址』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2집, 제주시, 1993). 아울러 법화사와 수정사 및 원당사는 그 창건연대를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창건 후 중창과 관련하여 元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서와 같이 제주에는 원의 개입 이전에 이미 사찰이 창건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다량의 기와는 제주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기와를 생산하였던 생산시설의 존재를 가시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된다(제주대학교박물관, 『法華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0집, 제주대학교·서귀포시, 1992; 제주대학교박물관, 『水精寺址』, 제주대학교·제주시, 2000).

3) 김일우, 「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김일우,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참조.

4) 전영준, 「조선전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존재 확인을 위한 試論」, 『인문학연구』 12(복간호), 2012, 227~248쪽 참조.

5) 전영준, 「삼별초의 항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193~220쪽 참조.

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말선초시기의 제주지역 수공업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기와수공업의 존재 양상을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수공업체제 및 도성건설에 기여하였던 사원수공업과 비교, 검토하겠다. 아울러 기와에 수습된 제주목 관아지의 기와와 향파두리 토성 출토 고려시대 기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여말선초시기 제주 기와수공업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文獻으로 확인하는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제주지역의 여러 수공업 양상을 전하는 기록은 많지 않지만, 1530년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의 「제주목」에는 당시까지의 제주 연혁을 정리한 내용이 있다.<sup>6)</sup> 이보다 앞선 기록으로 冲庵 金淨의 「제주풍토록」은 제주에 대한 문화상과 생활상의 斷想으로 1520년에 작성되었다. 이에 의하면 가옥은 기와집이 거의 드물어 정의현과 대정현의 2개 관사도 띠[茅]로 지붕을 덮었다고 하고 있으며, 지극히 제한적인 신분층에서 기와와 온돌을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7)</sup>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당시의 기와사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궁실] 항목의 弘化閣과 [누정] 항목의 觀德亭에 대한 기사가 그것이다. 먼저 홍화각의 기록을 보겠다.

가) 성 안에 있는데, 崔海山이 세운 것이다. 곧 옛날 안무사의 營인데 지금은 절제사의 營廳이 되었다. 高得宗의 記에, “...다음 해에 풍우가 철에 맞게 내리고 순조로워 곡식이 풍년들어 백성은 배를 두드리며 즐기고 말은 크게 번식하였으니, 우리 전하께서 어진 사람

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조.

7) 金淨, 『冲庵集』 「濟州風土錄」(1520), “人居皆茅茨不編 鋪積屋上而以長木橫結壓之 瓦屋絶少 如兩縣官舍亦茅蓋也.”

을 가리신 은혜가 깊고 또 지극하다. 공이 정사가 성취되고 인심이 화평해지자, 관청의 퇴폐하고 허물어진 것을 수축하려고 문을 닫은 절의 재목과 기와를 가져다가 먼저 거처하는 집을 일으키니, 거문고 치는 당과 욕실·부엌·낭사의 위치가 갖추어졌다. 조금 서편으로 집 세 칸을 세워서 당을 만들고 또 그 서쪽에 집 세 칸을 세우고 겹쳐마로 보충하니, 그 규모가 광대하고도 정밀하고 그 제도가 웅장하고도 화려하였다. 그 남쪽에 半刺(군의 보좌관)의 당을 세우고 그 북쪽에는 나라에 바치는 말의 마구를 두고, 동쪽에는 창고를 두고, 서쪽에는 온돌방을 두었다. 또 그 남쪽에 따로 門樓를 지어 아래로는 드나들게 하고 위에는 종과 북을 달았고, 藥창고와 旗 두는 곳이 동서에 서로 대치하게 하였다. 모두 담으로 둘러쓰니, 집이 도합 2백 여섯 칸인데 집들이 서로 연결하지 않은 것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경영과 위치와 제작이 적당함을 얻은 것은 모두 공의 지시와 계획에서 나왔다.”<sup>8)</sup>...

가)의 기록에 따르면 홍화각의 중수는 1435년(세종 17) 도안무사 崔海山の 부임 이듬해에 이루어졌으며, 총 206칸의 건물을 완성하였다. 최해산은 화재로 소실된 관청 내에 거처할 곳이 없음을 탄식하고 머리 깎은 죄수와 변을 사는 사람들만을 동원하여 새롭게 중수한 것이다.<sup>9)</sup> 이에 따르면 최해산의 중수 이전에 이미 관청 건물이 있었는데 기록만으로는 제주목 관아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알 수 없고 다만, 1435년의 정비는 제주목 관아시설의 일대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였음이 확인된다.<sup>10)</sup> 이때 새롭게 중수된 홍화각에 투입된 기와는 도내의 폐사된 사찰의 것을 재활용하였다는 점이다.

1435년 이전의 관청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기와를 사용하였던 관청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과, 화재로 퇴락한 건물의 중수를 기록한 위 인용문은 이미 이전 시기부터 기와수공업의 존재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폐사된 사찰의 건축부재를 중수에 활

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궁실, 弘化閣條, ‘高得宗의 記’.

9) 李元鎮, 『耽羅志』, 濟州 宮室條.

10) 김동전, 「제2장 제주목의 행정과 관아시설」, 『제주목 관아지』,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52~56쪽.

용하였다는 것은 1435년 이전인 고려시대부터 이미 사찰이 운영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 3대 사찰의 중창 시기를 감안해보면 초창 연대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발굴된 유물의 연대를 고려하여 이미 11세기 후반에는 사찰이 존재했음을 추론하였고,<sup>11)</sup> 1058년에는 고려의 사찰 창건을 위한 벌목과 조영에 탐라민이 동원되었던 기록에서<sup>12)</sup> 이 시기의 탐라에서도 이미 사찰이 조성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홍화각 중수 이전에도 제주에서는 기와를 사용한 건물이 있었으며, 사찰에 굳이 한정짓지 않더라도 건물의 位格을 상징화하는 瓦家の 존재를 상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홍화각의 중수 때 같이 마련된 건물은 모두 206칸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인다. 많은 건물을 중수하거나 신축할 때에는 당연히 상당한 양의 건축부재를 필요로 하는데, 기와 또한 상당량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홍화각 중수에 폐사된 사찰의 기와를 사용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사용처가 담장지에 제한적으로 쓰였다는 발굴 결과를 반영한다면,<sup>13)</sup> 신축 건물에 쓰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와는 새롭게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와 같이 기와를 직접 구웠다는 내용은 없으나, 206칸의 건물에 필요한 기와의 공급은 필수불가결한 일이었으므로 대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와요 또는 생산시설이 동시에 운영되지 않고는 기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sup>14)</sup>

11) 김경주, 「考古資料로 살펴 본 元과 濟州」,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몽골학회, 2016, 152쪽.

12) 『高麗史』 세가8, 문종 12년 8월 (乙巳). “(…) 且耽羅, 地瘠民貧, 惟以海產, 乘木道, 經紀謀生, 往年秋, 伐材過海, 新創佛寺, 勞弊已多, 今又重困, 恐生他變, 況我國文物禮樂, 興行已久, 商舶絡繹, 珍寶日至, 其於中國, 實無所資, 如非永絕契丹, 不宜通使宋朝, 從之.”

13) 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牧官衙址」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주시, 1992·1993·1998.

14) 고려시대의 와요는 제작 특성상 공사구역 내이거나 인근에 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주목 관아지 주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홍영의, 「개경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窯場」, 『개경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조

아울러 이때의 기와제작에 참여했던 장인들은 대체로 사찰에 소속된 僧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 건국 후 중앙정부는 관영수공업의 복구에 집중하고는 있었지만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사원수공업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었다.<sup>15)</sup> 때문에 제주사회의 경우에도 관청에 소속된 장인이 동원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사찰에 소속된 승장이 관급공사에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반면, 다음의 기록에서는 관청 자체의 수공업으로서 기와수공업의 존재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나) 弘化閣 남쪽에 있다. 辛淑晴이 세웠고, 成化 경자년에 목사 梁瓚이 중수하였다.

○ 辛碩祖의 기문에, “동지중추원사 高相公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고을 제주가 비록 먼 곳에 있으나 특별히 성스러운 임금의 덕화를 입어서, 가르치고 다스려서 文에 대한 일이나 武에 대한 방비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安撫使營 남쪽에 射廳 한 구역이 있는데 사졸을 훈련하는 곳이다. 예전부터 집이 없어 보기에다 장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로 추위와 더위에도 가릴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한스럽게 여겼다. 지금 안무사 辛侯가 정사를 시작한 다음해 무진년 가을에, 일이 닦아지고 풍년이 들어 노는 목수들을 불러서 재목을 모으고 기와를 굽고, 돌을 쌓아 臺를 만들고 새 정자를 그 위에 일으키고, 이름을 觀德이라 하였다. 모두 세 칸이고, 앞 퇴를 달고 좌우에 날개를 벌려 넓게

형근, 「고려시대 六窯의 성격과 운영」,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14, 2~4쪽 참조).

- 15) 정부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과제인 신도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정의 징발로 인한 폐단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를 대신 혹은 보충하려는 방편으로 승도를 동원하거나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승장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도를 건설하는 데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전영준, 「朝鮮初期 新都 建設과 僧匠-崇禮門上樑墨書銘을 중심으로-」, 『불교사연구』 4·5합집, 불교사학연구소, 중앙승가대학, 2004; 전영준, 「조선 전기 別瓦窯의 설치와 財政 運營」, 『藏書閣』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참조.

하고 약간 단청을 가하니, 크고 넓고 선명하며 높고 화려한 것이 제도에 알맞아서 참으로 한 고을의 장관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경사로 여겨 모두 사문에 의탁하여 뒤에 오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니, 자네는 나를 위하여 그 전 말을 써주게나.’ 하니, 글이 잘하다고 사양할 수 없었다.”<sup>16)</sup>

나)에 의하면 관덕정은 1448년(세종 30) 목사 신숙청이 군사들의 훈련청으로 창건한 건물로, 1480년(성종 11)에 목사 梁讚이 중수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기록에서는 가)에서 보이지 않았던 건축 工匠의 존재가 확인되며, 기와를 직접 구웠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때 기와 제작에 참여하였던 이들의 소속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찰 소속의 僧匠이거나 태종~세종 대에 사찰통폐합의 과정에서 放良된 승장들이 민간 수공업의 瓦匠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때문에 고려 후기에 무너진 관영수공업 체제가 복구되지 않은 조선 초기, 그것도 지방에서는 수공업자의 존재를 사찰이나 민간의 기술자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덕정의 중수에 참여한 工匠들은 이미 이전 왕조에서부터 건축 등의 토목공사에서 활동하였을 것이고, 도제교육의 틀에서 관련 기능의 전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sup>17)</sup> 따라서 앞의 가)와 나)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홍화각과 관덕정의 수축 시기가 13년 정도로 꽤 인접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와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던 수공업 장인들이 관영수공업에 속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홍화각과 관덕정을 포함하는 관청 건물의 중수에는 재활용된 기와와 함께 새롭게 제작된 기와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홍화각의 수축 때는 보이지 않던 와장들이 관덕정 수축 때 갑자기 동원되어 기와를 구워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전부터 기와 제작과 관련한 공장들과 수공업 집단이 소속에

1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누정, 觀德亭記.

17) 전영준,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4, 참조.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해 알고 있었던 지방정부가 관련 수공업에 동원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만한 것은 중앙정부도 건국 초기부터 도성 건설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천도 결정이 확정된 이후 태조는 1394년(태조 3) 9월 초에 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함과 동시에 권중화·정도전 등을 파견하여 종묘사직과 궁궐·관아·市廛·도로 등의 계획을 작성케 하여 같은 해 10월 25일 각曹마다 2명씩을 잔류시키고 百官有司를 대동하고 천도를 단행하였다.<sup>18)</sup> 태조는 한양 천도를 당면한 최대 급무로 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각도의 승도들을 징발·동원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승장들을 초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sup>19)</sup>

1394년 11월에 정부는 工作局을 설치함과 동시에 都評議使司의 상서<sup>20)</sup>를 따라 종묘와 궁궐 및 도성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民丁의 징발이 고려되었지만 백성들의 부담을 최소화

18)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 9월(己未) ; 同 10월(辛卯).

19) 『太祖實錄』 권7, 4년 2월 19일(癸未). “放宮闕造成諸道丁夫 以僧徒代之. 初大司憲朴經等上書曰 宮室之制 燕寢有殿 而百官供奉 各有所止 間閣之數 不下於千 其工匠卒徒 當用數萬人矣. 必用農民 以充其數 農必失時 不可不慮也. 士大夫營一家 必請僧以役者 手段熟習 且無家計而用工專也 僧亦樂於趨事者 以其有資於衣食也. 況創立宮闕 豈可容拙手於其間哉 徒廢農業 而緩於工役. 國家度僧 初無定額 僧之於民 居十之三 而其可赴役者亦不下三之二焉. 蓋僧之品有三 食不求飽 居無常處 修心僧堂者 上也; 講說法文 乘馬奔馳者 中也; 迎齋赴喪 規得衣食者 下也 臣等竊謂下等之僧其於國役也 赴之何害 願令攸司 集僧赴役 更不徵民 以遂其生 則工役不廢而邦本固矣. 上俞允 故有是.”

20)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 11월 초3일(己亥). “都評議使司狀申 寢廟所以奉祖宗而崇孝敬 宮闕所以示尊嚴而出政令 城郭所以嚴內外而固邦國 此皆有國家者所當先也. 恭惟殿下 受命啓統 俯從輿望 以定都于漢陽 萬世無疆之業 實基於此. 然而寢廟未成 宮室未作 城郭未築 殆非所以尊京師而重根本也. 殿下雖重民力 不欲興工 然此三者 皆不可不作. 宜命攸司 董治其役 以營寢廟 作宮室 築都城 申孝敬於祖宗 示尊嚴於臣民 且使國勢永固 然後一國之規模始備 而萬世之貽謀 益遠矣. 伏惟殿下施行焉. 王旨依申.”

시켜 반발을 사지 않는 일이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승도의 동원이나 승장의 초치가 불가피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2월 3일 종묘·궁궐의 기공식을 거행하면서 皇天后土와 山水諸神에게 제사 드린 데 이어, 그 다음 날에는 공역승들을 모아 工役에 착수했다.<sup>21)</sup> 물론 민정 징발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신도의 건설 과정에 민정보다 승도가 먼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旱災와 水災의 빈발로 인한 식량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정 징발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sup>22)</sup>

그런 이유로 태조 이래 국가에서 필요한 토목공사와 각종 영선에서 사찰 소속의 공역승을 모집하여 役에 종사하게 하거나, 국가 토목공사를 진행했던 당시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태종 1년 5월 태상왕의 명에 따라 僧人과 승군을 동원하거나<sup>23)</sup> 동년 7월의 궁궐조영에 승인을 동원한 사례,<sup>24)</sup> 태종 6년 8월에 있었던 경복궁의 영선에서 知申事 황희의 요청으로 각 도의 遊手僧 6백여 명을 사역하게 하고<sup>25)</sup> 연이어 社稷壇場 및 창고, 태평관도 조영한

21) 『太祖實錄』 권6, 태조 3년 12월 4일(己巳).

22) 태조대의 旱災와 관련한 기록으로는 모두 10건이 있었으나 水災와 겹쳐서 발생하였고, 특히 태조 3년에 집중되었다. 『太祖實錄』 권5, 태조 3년 4월 11일(庚辰); 『太祖實錄』 권5, 태조 3년 5월 6일(甲辰); 5월 8일(丙午); 5월 9일(丁未). 이와 함께 조선 초기 신도의 건설이 완료되던 세종 대에는 한재와 수재가 집중되었고, 여러 해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23) 『太宗實錄』 권1, 태종 1년 5월(己酉). 東北面都巡問使 姜思德이 조목을 건의하였는데, 태상왕이 釋王寺 서쪽에 25칸 규모의 宮을 造營함에 따라 동북면의 진영에 있는 工匠과 僧人 80명을 동원하고 후에 督僧軍 50명을 더하였다.

24) 『太宗實錄』 권2, 태종 1년 7월(戊申). 궁궐을 조영하기 위하여 각 도에서 僧人 150명과 木手, 石手 각 10명씩을 차출하여 구성하였다.

25) 『太宗實錄』 권12, 태종 6년 8월(辛卯). 각도의 세곡미를 보관하는 풍저창과 광흥창의 營造에서 흉년을 당한 백성을 대신하여 遊手僧을 사역시킨 일을 말한다. 이것은 당시 사용하지 않던 경복궁의 행랑을 수리하여 국가 토목공사와 민폐를 동시에 해결했던 기록이다. 또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으로 ‘役僧’의 개념을 ‘宗門僧’이 아닌 ‘山僧’으로 정의하고 있

것<sup>26)</sup> 등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태종 7년 5월에는 각 처의 營繕을 停罷하고 부역승도를 모두 방환하였고<sup>27)</sup> 홍천사 탑을 修葺하는 데에도 승도를 사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sup>28)</sup> 또 태종 12년 3월 행랑조성에 僧人을 동원한 사례<sup>29)</sup>와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경하기 위하여 승려 200명에게 朔料를 지급하고 사역에 동원한 사례<sup>30)</sup> 등은 당시 국가 토목공사나 기타 工役에 승도들을 동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추진된 것은 관영수공업 체제의 복구 노력이다.<sup>31)</sup> 고려 후기에 이미 무너진 관영수공업체제의 완전한 복구는 어려웠지만, 조선의 건국 초기부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도성건설을 위한 다양한 수공업 관청이 설치되었고 東西瓦窯도 그 중의 하나였다. 1392년(태조 1년) 7월에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東·西窯直에 각 1명을 두었다는 기록<sup>32)</sup>으로도 기와 제작 시설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와요에서 생산되는 기

다. 즉, 山僧이라는 표현으로 당시 조정 관료들의 승도에 대한 인식이 교리를 탐구하는 승려와 임의 출가한 승려로 구체화하고 있다.

26) 『太宗實錄』 권13, 태종 7년 4월(壬辰).

27) 『太宗實錄』 권13, 태종 7년 5월(壬申).

28) 『太宗實錄』 권19, 태종 10년 5월(庚辰).

29) 『太宗實錄』 권23, 태종 12년 3월(戊申). 행랑조성공사를 위하여 각 도에서 차출한 목공과 僧人들 중 행랑의 역사에 동원된 부역 일수를 채운 목공 200명은 각 도로 돌려보내고, 僧人은 제외하였다. 승도들은 부역 일수와 상관없이 공사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태종 원년 7월에 있었던 태상왕의 25칸 新宮을 조영하는 예에 비추어 볼 때, 행랑조성에 동원된 목공이 200명에 달한다면 승도의 수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조성된 행랑은 惠政橋에서 昌德宮 洞口에 이르는 것으로 800여 칸이 조성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행랑 増建을 위한 의정부의 啓請에 따라 僧軍 1천명과 木工 200명을 징집하였다.

30)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3월(庚寅). 태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印經되었고, 開慶寺에 안치되었다.

31) 전승창,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 18, 미술사연구회, 2004; 전영준, 앞의 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참조.

32) 『太祖實錄』 권1, 태조 1년 7월 28일(丁未). “東西大悲院 副使一錄事二社稷壇直二 東西窯直各一 江陰銀川開城廣州牧監直各一.”

와만으로는 도성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더구나 도성 내의 민가를 기와로 이을 상황은 더욱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왕조였던 고려시대에도 화재 이후 기와를 보급했던 정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sup>33)</sup> 특히 1426년(세종 8년)에 있었던 화재는 조정에서 계속 회자될 정도였다.<sup>34)</sup> 때문에 태종은 일찍부터 도성의 대규모 화재 발생을 염려하였던 1406년 1월에 별와요를 설치하여 민·관 수요의 기와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1406년(태종 6)에 승려 海宣의 청원을 받아들여 別瓦窯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관청 造營에 필요한 官需用 기와와 民需用 기와의 수급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도성 건설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도성내의 민가에 기와를 이어 도시미관과 화재 방지를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해선의 별와요 설치 청원은 관영수공업체제가 미처 확립되기 이전에 국정 운영에 기여했던 사원수공업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sup>35)</sup>

다) 別瓦窯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參知議政府事 李膺을 提調로, 典書 李士穎과 金光寶를 부제조로 삼고, 中 海宣을 化主로 삼았다. 해선이 일찍이 나라에 말하기를, “新都의 大小人家가 모두 茅[茅]로 집을 덮어서, 中國 사신이 왕래할 때에 보기가 아름답지 못하고 또 화재가 두렵습니다. 만약 別瓦를 설치하고 나에게 기와 굽

33) 『高麗史』 세가7, 문종 5년 2월 12일(癸巳). “京市署火 延燒一百二十戶 命有司 給材瓦.”

34) 『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2월 29일(癸巳); 『世宗實錄』 권45, 세종 11년 9월 30일(癸酉); 『世宗實錄』 권52, 세종 13년 4월 10일(甲辰); 『世宗實錄』 권121, 세종 30년 9월 22일(乙巳); 『端宗實錄』 권10, 단종 2년 3월 10일(辛酉).

35) 사찰수공업의 여러 업종 중 우수한 분야로는 製紙와 琉璃業 및 印刷業, 製瓦業이 손꼽혔다. 특히 製瓦는 사찰에서 건물의 미관과 장엄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주요 건축 자재였다. 때문에 사찰은 자체적인 佛事に 필요한 기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접 瓦窯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해선의 별와요 설치와 기와 공급은 고려 이래로 잘 유지되어 온 사찰수공업의 전승에 연유한다(전영준, 앞의 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4, 128쪽).

는 일을 맡게 하여 사람마다 값을 내고 이를 사가도록 허락한다면, 10년이 차지 아니하여 성안의 여염이 모두 기와집[瓦屋]이 될 것입니다” 하니, 나라에서 그렇게 여겨 여러 道에서 승려와 장인을 차등 있게 징발해서 그 役에 나아가도록 하였는데, 충청도·강원도에서 각각 僧 50명과 瓦匠 6명이요, 경상도에서 僧 80명과 瓦匠 10명이요, 경기·풍해도에서 각각 僧 30명과 瓦匠 5명이요, 전라도에서 僧 30명과 瓦匠 8명이었다.<sup>36)</sup>

다)에서와 같이 海宣은 태종에게 별와요의 설치<sup>37)</sup>를 청원하고 化主<sup>38)</sup>의 직임을 수행하였다. 세종대에 이르러 都大師의 지위에 이르지만, 그가 화주로서 활동하였다는 것은 당시 전국의 사찰마다 특화된 수공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화주는 사찰과 관계된 佛事에서 설법·募緣文 등을 통해 施物이나 노동력을 취할

36)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1월 28일(己未). “始置別瓦窯 以參知議政府事李膺爲提調 前典書李士穎 金光寶爲副提調 僧海宣爲化主. 海宣嘗言於國曰 ‘新都大小人家 皆蓋以茨 於上國使臣往來 瞻視不美 且火災可畏. 若置別窯 使予掌以燔瓦 許人人納價買之 則不滿十年 城中閭閻 盡爲瓦屋矣.’ 國家然之 發諸道僧匠有差 使赴其役. 忠清江原道各僧五十名瓦匠六名 慶尙道僧八十名瓦匠十名 京畿豐海道各僧三十名瓦匠五名 全羅道僧三十名瓦匠八名.”

37) 별와요의 설치 목적이 도성의 미관과 화재예방에 있었던 만큼 그 기능 역시 관영수공업장의 역할로 제한되었을 것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해선이 化主로서 별와요의 운영 권한을 국가로부터 얻어내고 명분을 내세워 민간에 기와의 실비 판매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별와요가 체제상으로는 관영수공업장으로 편입되어 있었지만, 그 생산품의 제작과 판매에 대한 전권을 승려가 담당하여 영리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일반적인 관영수공업장과는 다른 위치를 점한다(姜萬吉, 「別瓦窯考-朝鮮時代의 製瓦業 발전」, 『사학지』 1, 단국사학회, 1967, 25쪽).

38) 化主는 보통 施物을 얻어 절의 양식을 대는 화주승들을 지칭하는데, 용례로 보면 특정한 佛事を 책임지거나 그에 준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였다. 化主는 기념비적인 일을 관장하거나 공물대납·매매행위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禪源寺毘盧殿丹青記」, 『東文選』 권65; 李穡, 「五冠山 興聖寺의 轉藏法會 記文」, 『牧隱文藁』 권2; 『世宗實錄』 권88, 세종 22년 2월 16일(己丑); 『文宗實錄』 권7, 문종 1년 4월 13일(辛巳); 『成宗實錄』 권15, 성종 3년 2월 28일(乙未); 『仁祖實錄』 권29, 인조 12년 2월 18일(乙亥); 『孝宗實錄』 권8, 효종 3년 4월 18일(己未); 姜銑, 『연행록』, 己卯年 12월 초2일(丙寅)).

수 있는 민간의 동의를 전제로 활동하거나, 혹은 官과 결탁하여 民으로부터 강제로 收斂하는 경우도 있었다.<sup>39)</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별와요 운영에서도 화주는 재원 마련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세종이 興天寺 중수의 책임을 化主僧 洪照에게 맡겨놓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야 비용을 지원할 방법을 묻는다거나,<sup>40)</sup> 화주에게 일을 맡기면 국비를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언급<sup>41)</sup>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가 별와요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화주승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때문에 화주 해선은 별와요의 일을 책임지고 운영하면서도, 그 재정 역시 상당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관수용기와 마련과 더불어 도시미관 및 화재예방을 위한 기와 보급 명분으로 설치된 별와요임에도 불구하고 기와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대규모의 役事に 民丁을 동원할 경우 백성들의 농사에 영향을 주는 등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채택한 조선의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당시 사원을 중심으로 발달한 수공업장의 승장과 공역승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조직력도 승도 동원의 이유가 되었

39) 『世祖實錄』 권46, 세조 14년 5월 6일(乙丑). “內贍寺正孫昭拜辭 其齋去事目 一 圓覺寺佛油社長及洛山寺化主僧等 作弊於官家及民間 此社長及僧人等 訪問於僧守眉處及民間 隨捕隨繫 鞫問以啓 … 一 諸邑守令 聽上項僧人社長言 發官差收斂民間者 囚禁推鞫 若堂上官及功臣 議親 則啓聞囚禁 … 一 洛山寺營建所備 皆出公家 如有私齋募緣文者 盡數收取以啓 竝於諸道 移文收取.”

40) 『世宗實錄』 권89, 세종 22년 4월 23일(乙未). “傳旨承政院 興天寺 祖宗所創也 累經年紀 多有圯毀 予命重修 今者工已告訖 其化主僧洪照等欲於夏月 爲設慶讚 請之不已 予惟興天 既祖宗之所創 則慶讚之辦 亦不可專委於僧而視之忽然也 往在祖宗之時 亦行此事 今乃何委諸僧而不之顧乎 將官給米布 補其不足耶 抑亦國家專辦其事 不藉於僧乎 爾等審議以聞.”

41) 『宣祖實錄』 권117, 선조 32년 9월 26일(壬申). “備邊司啓曰 邢軍門生祠堂 銅柱 石碑等事 非但姜良棟言之 軍門差官連續來到 每問其建置與否 … 若得僧人勤幹者一人 使之隨便建立 則不費公家之力 而成之甚易 且石碑事 … 亦令義嚴【此總攝僧人】擇定化主僧人 隨便爲之 亦似無妨 敢啓.”

다.<sup>42)</sup> 때문에 해선을 별와요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조선 초기의 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맥락에서 이해된다.<sup>43)</sup>

이와 같은 당시의 중앙정부 입장을 반영하여 보면 제주의 관영건축에 필요한 자원 동원에도 사원의 역할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화각이 건축될 시기의 제주 지역에는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찰이 상당수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수정사는 법화사·원당사와 함께 고려시대 제주의 3대 사찰로 손꼽혔다. 1408년(태종 8)에는 의정부에서 제주도 비보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의 노비수를 정하였던 기사가 보이는데,<sup>44)</sup> 이때 다른 사찰들은 통폐합되거나 폐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홍화각 수축에 폐사된 사찰의 기와를 재활용하였다는 기록은 역설적으로 이미 고려시대 제주에는 상당수의 사찰이 운영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고려 말 공민왕, 우왕 무렵 완도와 제주에 살았던 승려로 여러 편의 시를 남긴 慧日의 행장에서<sup>45)</sup> 확인되는 사찰은 묘련사·서천

42) 전영준, 앞의 학위논문, 2004, 104~105쪽.

43) 이에 대해 이정신은 기와의 경우 鐵과 마찬가지로 정역호를 지칭해서 공물이나 진상물을 납부케 하다가 일반 民戶의 부담으로 전가시켰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별요에 쓰일 땔감을 운반하는 경우에 국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정신,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고려사학회, 2007, 80쪽).

44) 『太宗實錄』 권15, 태종 8년 2월 28일(丁未), “議政府啓定濟州法華修正二寺奴婢之數. 啓曰 ‘據濟州牧使呈 州境裨補二處 修正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 法華寺見有二百八十口. 乞將兩寺奴婢 依他寺社例各給三十口 其餘三百八十二口 屬典農.’ 從之.”

45) 승려 慧日의 행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단서를 통해 생몰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7 전라도, 康津縣에 그의 시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 ①산천 조 「萬德山」, ②불우 조 「白蓮社」, ③고적 조 「仙山島」 ④고적 조 「法華菴」 ⑤제영 조에 다수가 전한다. 특히 ③고적 조 선산도에는 그의 出自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소개되어 있다. “고려의 正言 李穎이 완도에 귀양을 왔는데, 그의 작은 아버지인 승려 혜일이 따라와서 찾아보고 곧 섬으로 들어가 절을 세우고 살았다(高麗正言李穎 謫莞島 其叔父僧慧日 隨而訪之 仍入島創寺以居).”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혜일은 이영의 작은 아버지이다. 李穡의

암·보문사·법화사이며, 산방굴사를 직접 창건하였다는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존속하였던 사찰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월계사·문수사·해륜사·만수사·강림사·소림사·관음사<sup>46)</sup>·존자암 등의 寺名도 확인된다. 이로 보더라도 고려시대 제주에는 상당수의 사찰이 존재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사찰들은 기본적인 가람의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려시대의 사찰들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僧物의 제작이나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으며,<sup>47)</sup> 이는 제주지역에서 운용되었던 사찰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이유로 홍화각의 수축에 폐사의 기와를 재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찰 자체의 수공업 생산 기능으로만 설명될 것은 아니며, 고려시대의 관청 또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수공업체제는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된다.<sup>48)</sup> 1105년에 제주는 고려 정부의 지방행정에 편입

『牧隱文藁』 권20, 「吳全傳」에도 이영이 나오는데, “李穎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오동의 外兄弟이다. 그도 글씨를 잘 썼는데, 安常軒 곧 安震 선생이 그를 사위로 맞이하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 뒤에 과거에 뽑혀 正言에 임명되고 禮部員外郎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나중에는 숨어 살면서 나오지 않았다.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興國寺 남쪽에 산봉우리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동쪽 벼랑 쪽에 오동과 이영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에서 보아 여기서의 이영이 정언을 역임했던 바로 혜일의 조카이다. 따라서 이영은 목은 이색(1328~1396)과 동시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영이 완도에 귀양 와서 살았다는 사실은 丁若鏞의 『茶山詩文集』 권5 詩, 「남당포를 지나며(過南塘浦)」에도 확인할 수 있다.

- 46) 관음사는 당시 조천포에 있었으며, 행인의 왕래가 잦은 곳에 사찰을 건립하는 고려시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전영준, 「高麗 睿宗代의 사찰 창건과 승도 동원—惠陰寺新創記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 47) 崔永好, 「高麗時代 寺院手工業의 發展基盤과 그 운영」, 『국사관논총』 95, 국사편찬위원회, 2001; 전영준, 「高麗後期 供役僧과 寺院의 造營組織」,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 참고.
- 48) 제주 지역의 기와수공업은 관청과 사찰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체적 생산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탐라왕국 시기에 유통되었던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앙의 현령관 파견은 관청수공업의 기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삼별초의 제주 진입과 함께 유입되었을 각종 수공업 기술은 기존의 사원수공업과 함께 여말선초 수공업 문화의 한 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 Ⅲ. 考古資料로 확인하는 麗末鮮初 제주의 기와수공업

여말선초 제주의 기와수공업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고고학 분야의 연구는 상당량 축적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주목 관아지와 향파두리 토성 관련 보고서를 비롯한 수정사지·법화사지·원당사지·존자암지 발굴보고서가 대표적이다. 방대한 양을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운영되었을 사찰과 제주목 관아지를 중심으로 제주의 기와수공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에 운영되었을 寺庵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는 바, 수정사·법화사·원당사·묘련사·서천암·보문사·산방굴사·존자암·월계사·문수사·해륜사·만수사·강림사·소림사·관음사의 15처 내외로 확인된다. 이들 사찰 중 수정사지·법화사지·원당사지(현, 佛塔寺)·존자암지에 대한 기왕의 발굴보고서를 확인하면, 대체로 10세기에서 12세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다수 발굴되었고, 이를 근거로 사찰의 창건 연대를 고려시대 전반기로 추정하고 있다.<sup>49)</sup>

삼양동식토기·곽지리식토기·고내리식토기의 제작을 담당했던 장인 집단(국립제주박물관 탐라실 소장유물검색, [http://jeju.museum.go.kr/\\_prog/collection/index.](http://jeju.museum.go.kr/_prog/collection/index.))이 고려시대 제주사회에 필요한 수공업 기능을 습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9) 제주문화예술재단, 「元堂寺址」, 불탑사(옛 원당사지) 5층석탑 문화유적

수정사의 초창연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조선 태종 때까지도 비보사찰로서 130여 명의 노비가 두어질 정도로 제주에서는 법화사에 이어 그 규모가 매우 큰 사찰이었다. 다음의 인용문은 당시 제주의 비보사찰로 법화사와 수정사가 운용되고 있음을 말하는 내용이다.

라) 議政府에서 제주의 法華・修正(水精) 두 절의 노비의 수를 아뢰어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주 목사의 呈文에 의거하면 주의 경내에 비보사찰이 두 곳인데, 修正寺에는 현재 노비 1백 30구가 있고, 法華寺에는 현재 노비 2백 80구가 있으니, 비읍건대, 두 절의 노비를 다른 寺社의 例에 의하여 각각 30구를 주고, 그 나머지 3백 82구는 典農에 붙이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sup>50)</sup>

이 두 사찰에는 각각 노비가 130구와 280구를 두고 있었는데, 이때의 결정으로 각각 노비 30구만을 두고 나머지는 전농시에 소속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기록만으로 보더라도 수정사의 위상은 고려 말에서 태종 8년에 이르는 시기에 가장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1)</sup> 이 때 노비의 수가 줄어들게 되자 수정사는 법화사와 마찬가지로 寺勢가 축소되었고 폐사될 때까지 비보사찰의 성격은 유지하였으나 그 위상은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

수정사지 발굴조사는 1998년과 2000년에 이루어졌는데, 조사된 유구는 건물지 12동, 도로와 보도, 탑지, 석등지, 담장지, 폐와무지, 적석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옛 수정사는 금당지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이 건물을 중심으로 中庭 형태의 건물을 회랑식으로 배치했으며, 중정 내에 탑과 석등을 두었다. 금당지를 축으로 보도, 문루, 종루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경사진 면을 다듬어 크게 세 개의 축대로써 각 건물간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로 파악되었다.<sup>52)</sup> 발굴 과정에서 출토

발굴조사보고서, 제주시, 2007, 참조.

50) 『太宗實錄』 권15, 8년 2월 28일(丁未).

51)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보고서, 2007, 103쪽.

52) 제주대학교박물관, 『水精寺址』, 제주시, 2000, 참조.

된 유물은 北宋代의 화폐와 11세기 청자류가 출토됨으로써 초창연대는 적어도 12세기 이전에 창건된 耽羅 古刹임을 고찰할 수 있다.

이상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사실은 각종 명문와와 함께 제작 시기가 이른 토기 및 시유도기, 자기류가 다량 출토된다는 점이다. 특히 기와는 고려시대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었던 日暉文 막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사의 초창 및 중창에 사용된 기와는 고려시대 와장들이 제작하였던 것으로 판명된다는 점이다. 130구의 노비가 있었다는 것과 조사된 12동의 건물지 유구를 고려하면 수정사의 초창과 여러 차례의 중수에는 고려의 瓦匠이 직접 제작하였거나, 기와제작술을 습득한 이들에 의해 제주에서 직접 제작된 기와가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것은 사원수공업의 확장과 관련하여 보면 더욱 명료해진다.

법화사 또한 비보사찰의 위상으로 존재하였는데 규모로는 수정사보다 훨씬 컸었다고 보인다. 총 8차에 걸친 조사에서 건물지 10동, 계단시설, 보도시설, 폐와무지, 담장, 추정 蓮池 등을 비롯한 수많은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명문와를 비롯한 각종 기와, 청자를 비롯한 각종 도자기, 도기, 청동 등잔, 화폐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또한 법화사지는 총 4단계의 시설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차시기의 유물 중 ‘至元六年己巳始重脩十六年己卯畢’의 명문와는 1269년 중창을 시작하여 1279년에 마쳤다는 의미로 이 시기 이전에 사찰이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53)</sup> 중창시기인 1269년 즉, 13세기 중반 이전의 중요 유물은 開元通寶, ‘法華經前燈盞此樣四施主朱景’銘 청동등잔과 청자양각연판문 대접, 고급 도기 등이다. 개원통보의 뒷면 상단에 초승달 모양이 새겨진 형식으로 이 양식의 사용 시기는 武宗 會昌年間(841~846)이다. 출토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일부 도기 중에는 10세기 이전의 제작수법을 가진 것들이 있다. 청동등잔 또한 南宋 때의 등잔과 유사하여 10

53) 제주문화예술회관, 앞의 보고서, 2007, 101~102쪽.

~11세기 유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폐와무지에서 발견된 청자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녹청자 계열로 11세기경을 중심연대로 하는 것이어서 12세기 이전에 법화사가 운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고고자료인 것이다.<sup>54)</sup> 이처럼 법화사의 유물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고, ‘至元’銘 명문와의 존재는 법화사의 초창을 미루어 짐작할 때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와의 사용을 알려주는 내용인 셈이다. 즉, 상당히 고급 기물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사찰의 초창부터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을 기와제작은 수준 높은 단계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발굴된 용과 봉황문이 장식된 元式기와는 배면에 포목흔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의 와장에 의해 제작된 막새기와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막새기와를 사용하여 축조된 건축물은 원의 목수 및 기술자들이 제주에 이주하여 조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세를 비롯한 원의 기술자에 의해 원 세조의 피난궁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55)</sup> 이것은 원의 기술자가 투입되어 제작된 원식기와나 원나라 상도 궁성에서 확인되는 주좌각원 주초석의 축조 및 용과 봉황문 막새의 사용은 원나라 황실건축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건물이었음을 의미하며, 원 순제의 피난궁은 법화사 경내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sup>56)</sup>

원당사도 10세기 중반 경에 제작된 청자를 비롯하여 주로 11~12세기에 제작된 청자발과 청자대접을 근거로 창건 시기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수막새 2종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제주목 관아지 발굴조사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sup>57)</sup> 이와 함께 원당사지에서 발견되는 평기와는 고려중기의 기와제작수법을 보이고 있는데 온전한 상태의 기와는 적으나, 복원 결과 어골문과 결합되는 중심문양이 대부분 기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중

54) 문화재연구소, 『제주의 폐사지』 제주 불교유적 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59쪽.

55) 김정주, 앞의 글, 2016, 160쪽.

56) 김정주, 위의 글, 2016, 165쪽.

57)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목관아지」, 제주시, 1993·1998.

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sup>58)</sup>

묘련사지 조사에서도 출토된 명문와와 기와를 분석하여 고려중기로 그 창건시기를 잡고 있다. 특히 ‘同願此處官李員村’과 ‘萬戶李’ 등이 시문된 기와는 1991년 제주목 관아지 발굴조사에서도 출토된 일이 있으며, 1987년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 절터에서도 확인된 일이 있음을 밝혔다.<sup>59)</sup>

한편, 향파두리 토성 내·외성지에 대한 발굴에서 축적되는 자료들은 삼별초의 제주 입거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된다.<sup>60)</sup> 향파두리 성과 관련하여 볼 때 직접 관련 있는 기와가마터가 확인되었는데, 2기의 가마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향파두리성 북편 20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주변에는 구시물과 서쪽 방향에 장수물이라고 전해지는 용천수가 있다. 이 기와 가마터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가마는 지형을 따라서 축조된 듯하며,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은 火口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뿐이며 燒成室과 굴뚝은 2~3m 두께의 흙에 묻혀 있다. 노출된 부분으로 보아 가마는 넓적한 현무암 잡석과 진흙을 빚어서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마는 통가마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는 반원형으로 되어 있다. 가마의 외부와 좌우측 토층에는 기와조각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대체적으로 魚骨文과 複合文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향파두리성 내의 것과 흡사한 것들로 보인다. 가마의 화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묻혀 있어 전체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천정이 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산등성이 비탈길에 굴 모양으로 길게 만든 登窯 형식의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 1989년 당시 흙무더기 속에 수키와 완형들이 돌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유실되어 어골문이

58)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보고서, 2007, 95~99쪽.

59) 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80~81쪽.

60)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4, 참조.



<그림 21> 시계방향으로 향파두리 내 와요지(왼쪽) -어골문 수키와(우측 위)-복합문암키와(우측 아래)



<그림 22> ‘장털’와요지 수습 와편

나 복합문 등의 조각들만 눈에 띈다. 출토된 기와 조각들만 보았을 때는 1271년 전후 대몽항쟁기 향파두리성에서 출토된 것과 흡사하며 구전으로도 삼별초군이 조성한 가마터라 전해지고 있다.<sup>61)</sup>

이와 함께 향파두리성 내 동남쪽으로 지경에 속칭 ‘장털’이라 칭하는 곳에 와요지가 있다. 와요가 있었던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현재는 와요의 축조를 확인하는 흔적은 없지만, 자연경사를 그대로 이용해 축조되었을 것이라 이해된다. 이窯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기와들은 향파두성 내의 건

61)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제주도, 『제주민속유적』, 1997.

물에 사용되었고, 성곽에도 일부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와요지를 중심으로 날기와 밧 기와편들이 넓게 산포되어 있으며 가마의耐火材였을 것이라 추측되는 용융된 현무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와편들의 문양은 무문이나 어골문이 많으며 어골원문과 어골과문도 보이고 있다. 기와편은 대체로 작으며 완형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매립된 지표 하부에는 완전한 기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와의 두께는 보통 2.5cm이며 얇은 것은 1.5cm도 있다.

주변에는 남문추정지가 있고 바로 아래쪽인 동쪽에 연못이었던 자리가 있다. 이 연못지는 개간되거나 잡풀로 덮여 있어서 그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와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은 이 연못으로부터 공급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sup>62)</sup> 아울러 촌락명이 직접 시문되어 있는 명문와들이 보여주는 타날판의 특징 또한 고려시대에 전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의 가마터로 알려지고 있는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 ‘와막팻’요지를 비롯하여 구좌읍 덕천리 ‘흘렛동산’지경 와요지, 대정읍 무릉리 인항동 ‘조롱물’ 서쪽 경작지 와요지, 남원읍 신례2리 공천포구와 일주도로 사이 와요지, 서귀포시 신호동 ‘외왓’ 지경 와요지 등이 확인되는데, 이들 중 함덕리 ‘와막팻’ 와요지에서 확인되는 기와편의 문양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와요지는 함덕리 해변의 동쪽 서우봉 밑에 위치해 있다. 서우봉의 완만한 경사를 이용하여 약 10도의 경사를 이루며 동서로 길게 축조되었고, 서쪽이 낮으며 외부의 길이는 유실 부분이 270cm, 남아 있는 부분이 710cm이다.

화구는 유실되었으나 부장의 흔적은 남아 있고 소성실 뒷면은 문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굴의 내부 바닥에는 모래가 쌓여 있어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앞에서 보이는 굴의 입구 부분의 넓이는 120cm, 높이 56cm이며, 굴 안에서 잴 수 있는 굴의 넓이는 216cm,

62)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http://cafe.daum.net/myjeju.com>



<그림 23> 함덕 서우봉 ‘와막팻’와요지 근경

높이 147cm, 길이 490cm이다. 굴은 꽤 단단하게 축조되었고 열 손실이 적도록 보토바름이 두텁게 되어 있어 천장의 두께가 80cm에 이른다. 굴벽도 현무암, 잡석,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소성실의 현무암 용융 상태로 보아 기와의 소성 온도도 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확인되는 기와들은 ‘날기 와’(형태를 만들고 굽지 않은 것)와 ‘군기와’(가마에서 구워진 것)가 있으며, 문양은 어골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무문, 어골사각문, 어골원문, 어골격자문, 복합문 등이 있다.<sup>63)</sup>

현재까지 제주에서 확인되는 기와가마의 특징으로 볼 때, 자연경사면을 활용한 등요형식의 와요로 확인된다. 대체로 이들 와요에서는 제주도내의 관아·사찰·주택용 기와를 생산하여 공급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와요를 축조하는 방법에서도 내륙의 가마와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와요의 구조 방식은 제주도산 현무암으로 가마의 벽과 천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는 현재 대정읍 무릉리에 복원되어 있는 제주옹기 가마와 거의 흡사하다는 점에서 기와와 생활용기의 상관관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와요에서 만들어진 기와들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용하였던 문양이 시문되고 있다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63)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북제주군,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1998.



<그림 24> 향파두리 토성 수습 '신축2월'명 기와 탁본

이상과 같은 각종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은 주로 출토 유물의 제작 연대가 비교적 이른 시기가 많고, 동반되는 명문와와 기와의 제작 연대가 거의 비슷한 시기가 주종을 이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기와들이 공통적으로 수습되는 곳 또한 제주목 관아지임을 밝히고 있어서 앞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관청 건물의 보수 및 중창에 사찰의 폐자재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규모가 방대한 관청의 조영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은 중앙정부가 그랬듯이 제주에서도 사원의 助力을 받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것은 원 간섭기 이후 충선왕대 관영수공업체제가 무너지면서 곧 민영수공업의 확산을 가져왔다<sup>64)</sup>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때까지 유지되면서

64) 이호경,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제작기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

도 더 확장되고 있었던 사원수공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려시대 제주에 존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수의 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체적인 수공업 기능은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일정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발견되는 여러 기와들 중 ‘瓦草’명의 기와는 제작 편년이 고려 전기라는 절대 연대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향파두리 토성에서 출토된 명문와는 기존에 확인된 바와 같이 지역 명이나 제작간지 및 사찰명이 포함되는 명문와는 다른 유형의 명문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토성에서 발굴되는 ‘辛丑二月’銘 기와를 통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제주가 고려 정부로 편입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고려기와 제작술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sup>65)</sup>

따라서 조선 초기 관청 건물의 대대적인 정비작업에는 여말선초 시기의 제주지역에 존재했던 사찰과 자체 내에서 운용되었을 수공업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여말선초시기부터 사원이나 관청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製紙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sup>66)</sup> 조선 전기 제지수공업의 존재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여러 기록들 중 제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편제를 미루어 볼 때, 제주가 속했던 전라도의 상황을 고려하고 『經國大典』의 京外工匠體制에 대한 분석을 염두에 둔다면 관련된 사서의 기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되었던 닥나무 껍질에 대한 관찬 사서의 기록이 우선 확인된다. 제주선위별감이 진상한 닥나무 껍질 120근과 그에 대한 세종의 보호 명령은 제지수공업의 직접적인 원료인 닥나무 식재와 재배 권장을 통해 종이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67)</sup>

교, 2008, 참조.

65) 전영준, 앞의 글, 2015, 참조.

66) 전영준, 앞의 글, 2012, 231~241쪽 참조.

이와 함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의 「濟州牧」에서 확인되는 製紙 관련 사료로 <牛島> 항목에 ‘닥나무가 많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1530년 이전에 이미 제주지역에는 자생 닥나무의 생장이나 새롭게 식재된 倭楮가 있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世宗實錄』 기사에 따른 제주지역의 닥피 진상은 조선 전기 지방의 공납과 관련이 높지만, 국왕의 특별한 하교에 따른 결과였다. 이 기록의 중요성과 더불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우도의 닥나무 자생 기록 또한 제주지역 자체의 제지수공업 생산 체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배경에는 국초부터 왕실과 관수용 종이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었던 사실과 연관할 때, 지방 관청의 종이 수요를 중앙 정부가 공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전라도에 속해 있던 제주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종이는 자체적인 수급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를 위한 닥나무 생산이나 공장 체제도 일정 정도는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68)</sup>

제주지역에서 닥나무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진상되었다는 정부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이미 제주에서는 닥나무 식재와 제지수공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300년대 후반에 제주지역의 묘련사에서 대장경 관련 판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sup>69)</sup> 교정과 교

67) 『世宗實錄』 권63, 16년 2월 3일 (辛亥). ‘濟州宣慰別監尹處恭, 進胡椒楮一百二十斤, 卽傳旨濟州曰: 胡椒, 楮木爲雜木蔭蔽, 不得茂盛, 剪其雜木, 使之長盛.’

68) 『經國大典』에서 밝히는 소속지장의 제주지역 파견과 관계없이 종이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전제한다면, 부분적이거나 생산 체제를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선 전기 제주지역에 부임하였던 목사 등의 문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69) 윤봉택, 「13세기 濟州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 『탐라문화』 29, 탐라문화연구원, 2006, 193~228쪽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대장경 판목의 판각에는 교정에 필요한 종이의 수급을 요하기 때문에 묘련사 자체의 종이 수급이나 지방 정부에서 공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열에 필요한 종이 수급은 사원 자체의 기술력으로 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제지수공업의 존재를 확인하는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때문에 이때의 각종 수공업에 대해서는 고려에 편입된 지방정부로서 제주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본격적인 중앙정부의 행정적 간여에 앞서서 제주에 많은 수의 사원이 창건되고 운영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팔관회의 참여나 진헌무역 등에 수반하는 해상교통의 어려움을 종교적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탐라민의 의지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으며, 고려후기 관영수공업의 쇠퇴와 사원수공업의 확산에 따른 소속 구성원의 기능이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제주는 이전 왕조의 각종 수공업이 자체적으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된다.<sup>70)</sup>

#### IV. 맺음말

조선 초기 제주의 행정관서인 弘化閣의 중건은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와 행정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1435년에 이루어졌다. 이때 홍화각과 함께 중건된 건물은 모두 206칸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의 役事였다. 이후 13년이 지난 1448년의 관덕정 수축도 모두 지방 행정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토목공사였지만, 이 과정에서 동원된 인원과 건축자재들은 모두 제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목수를 비롯한 瓦匠의 공사 참여는 이전 왕조에서부터 축적되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의 중앙정부 또한 도성건설이라는 중차대한 목표에 매진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정부인 제주에 행정력을

70) 사원수공업의 양상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불교시대사, 1993; 전영준, 앞의 학위논문, 2004; 이병희,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추가로 지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 행정관서의 수축에는 제주가 보유한 자원과 기술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1991년부터 진행되었던 제주목 관아지에 대한 발굴은 문헌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제주 행정관서의 실제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록에 따르면 홍화각의 중건에 쓰인 기와는 폐사된 사원의 부자재였지만, 발굴 결과 와적담장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홍화각의 수축에는 새롭게 제작된 기와도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이후 관덕정 중수에서 기와를 구워냈다는 기록으로 재확인되지만, 관영수공업 체제가 미처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수공업자나 관영수공업자가 동원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보다는 고려시대부터 존속해 왔던 15처 내외에 이르는 사원의 助力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히 제주의 3대 사찰로 손꼽히는 법화사·수정사·원당사를 비롯하여 묘련사·보문사·관음사와 같은 사찰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원수공업 본래의 기능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로는 고려시대 때부터 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僧物의 제작이나 토목공사 등에 투입되었던 수공업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 시기에 걸쳐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원의 존재와 운영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사원수공업은 내륙의 사원에서와 같이 일찍부터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고려 숙종 10년에 지방행정 체계에 편입된 제주에 전승되었을 사원수공업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조선 초기에 이루어진 弘化閣이나 觀德亭의 수축에는 이전 왕조에서 이루어졌던 기와수공업 기능이 보태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牧隱文藁』 『東文選』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冲庵集』 『新增東國輿地勝覽』 『耽羅志』

姜萬吉, 「別瓦窯考 - 朝鮮時代의 製瓦業 발전」, 『사학지』 1, 단국사학회, 1967.

고용규, 「장흥 대리 상방촌유적 출토 명문기와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고창석,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 외성(外城) 시·발굴조사 간략보고서(2014-13)」,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014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실 소장유물검색([http://jeju.museum.go.kr/\\_prog/collection/index](http://jeju.museum.go.kr/_prog/collection/index).)

김경주, 「考古資料로 살펴 본 元과 濟州」,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몽골학회, 2016.

김동전, 「제2장 제주목의 행정과 관아시설」, 『제주목 관아지』, 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김일우, 「高麗時代 耽羅의 地方編制 시기와 그 單位의 형태」,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김일우,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북제주군, 『북제주군의 문화유적』, 1998.

윤봉택, 「13세기 濟州妙蓮社板 <金光明經文句>의 事實 照明」, 『탐라문화』 29, 탐라문화연구원, 2006

이병희,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불교시대사, 1993.

이정신,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고려사학회, 2007.

- 이호경,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제작기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8.
- 전승창,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제 연구」, 『미술사연구』 18, 미술사연구회, 2004.
- 전영준, 「高麗 睿宗代の 사찰 창건과 승도 동원-惠陰寺新創記」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4.
- 전영준, 「朝鮮初期 新都 建設과 僧匠 -崇禮門上樑墨書銘을 중심으로-」, 『불교사연구』 4·5합집, 불교사학연구소, 중앙승가대학, 2004.
- 전영준, 「高麗時代 供役僧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4.
- 전영준, 「高麗後期 供役僧과 寺院의 造營組織」,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
- 전영준, 「高麗 江都時代 사찰의 기능과 역할」,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 전영준, 「조선전기 제주지역의 製紙手工業 존재 확인을 위한 試論」, 『인문학연구』 12(복간호), 2012.
- 전영준, 「조선 전기 別瓦窯의 설치와 財政 運營」, 『藏書閣』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전영준, 「삼별초의 향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 鄭治永, 「高麗~朝鮮 前期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2, 중부고고학회, 2007.
-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4.
- 제주고고학연구소, 「이도1동 숙박시설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2015.
- 제주도, 『제주민속유적』, 1997.
- 제주대학교박물관, 『法華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0집, 제주대학교·서귀포시, 1992.

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牧官衙址」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 12집, 제주시, 1993.

제주대학교박물관, 『水精寺址』, 제주시, 2000.

제주문화예술재단, 「元堂寺址」, 불탑사(옛 원당사지) 5층석탑 문화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제주시, 2007.

조형근, 「고려시대 六窯의 성격과 운영」,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2014.

崔永好, 「高麗時代 寺院手工業의 發展基盤과 그 운영」, 『국사관논총』 95, 국사편찬위원회, 2001.

최영희, 「강원지방 고려시대 평기와에 관한 연구」, 『문화사학』 21, 한국문화사학회, 2004.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홍영의, 「개경 고려궁성 출토 명문기와의 유형과 窯場」, 『개경 고려 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 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Abstract>

Roof tile handicraft industry in Jeju island in the period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he light of literatures and archaeological materials

Jeon, Young-joon

Two roof tile kiln sites discovered in the site of accommodations around Gwangyang rotary, Jeju city are identified as the ruins in the Goryeo dynasty. This can be a important clue to prove that there existed roof tile handicraft industry in Jeju island in the period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Regrettably, general perception of handicraft industry in Jeju island in the period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mostly reflects the views of exiles, even now. Thus,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roof tile handicraft industry in the period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by comparing the management of handicraft industry in the temples of Jeju island in the Goryeo dynasty with the temples in land or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excava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e sites in Jeju island in the period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In 『Sinjeung-dongguk-yeojiseungnam (The Revised and Augmented Version of the Survey of the National Geography of

Korea)』, especially two articles attract attention with respect to social situation in Jeju island at that time: one article is about Hongwhagak Hall in [royal palace] section; the other is about Gwandeokjeong Hall in [pavilion] section. The fact that roof tiles of ruined temples were reused when rebuilding local government buildings destroyed by fire in 1435 suggests that roof tiles were already used in Jeju island before that time. There are 15 temples in Jeju island which seem to have been run since the Goryeo dynasty. Among them, Sujeongsa Temple, Beophwasa Temple and Wondangsa Temple were recognized as three largest temples in the Goryeo dynasty in Jeju island. Temples in the Goryeo dynasty themselves had the skills to manufacture daily necessities called Sabangseungmul and all material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temples.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that temples in Jeju island seem to have had such skills as well. Afterwards, different kinds of handicraft industry culture introduced with the entry of the Three Elite Patrols called Sambyeolcho into Jeju island could have served as one part of technology culture in state-run handicraft industry in the period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along with the conventional temple handicraft industry.

A large building with 206 rooms was constructed together with the reconstruction of Hongwhagak Hall. A considerable amount of construction members was probably required to rebuild or construct multiple buildings. Of course, roof tiles would be necessary significantly. Although roof tiles of ruined temples were reused in rebuilding Hongwhagak Hall.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usage was limited to fences as a excavation result, roof tiles for new buildings may have been newly manufactured. In that

roof tiles were manufactured near where their users existed, it is likely that tile kilns existed around local government building sites of Jeju.

Key words: Hongwhagak Hall, Gwandeokjeong Hall, Roof tile handicraft industry, Temple handicraft industry, Roof tile kiln site

K C I